

Z세대, 10명 중 4명 ‘돈’보다 ‘워라밸’ 중시!

보통 MZ세대를 묶어 하나로 보지만, 엄밀히 보면 M세대와 Z세대는 출생 시기도,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 이번 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라고도 불리는 Z세대이다. Z세대(Generation Z)는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 사이의 세대를 의미하며, 인구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Z세대로 분류한다. 나이로는 대략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이니 교회에서는 청소년부에서 대학부 정도까지가 해당된다.

지난 넘버즈 211호 목회 인식 파트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목회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위가 ‘다음 세대 교육 문제’였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이들에 대한 가치관, 욕구 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성세대와는 가치관·행동 등 모든 것이 다른, 이 세대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품는가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번 <넘버즈 212호>에서는 Z세대의 전반적 인식/가치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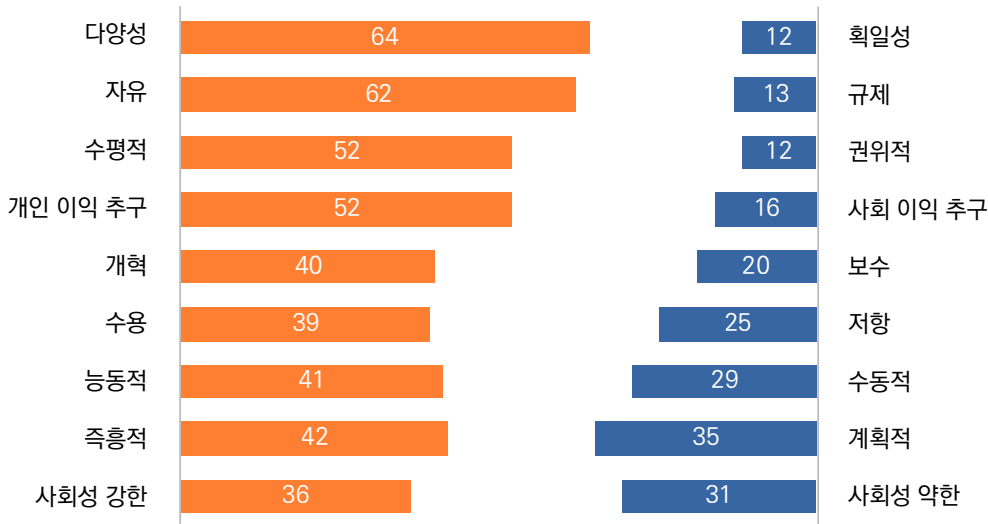
01

[Z세대에 대한 인식]

Z세대가 생각하는 Z세대, '다양성, 자유, 수평적'!

- ▶ Z세대는 자신들의 성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서로 대조되는 단어 쌍을 제시하고 Z세대에게 본인의 특징과 더 가까운 단어를 선택하게끔 한 결과, 확일성보다는 '다양성', 규제보다는 '자유', 권위적이기보다 '수평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 ▶ 반면, '능동적', '즉흥적', '사회성 강한' 성향은 대조되는 특징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Z세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Z세대의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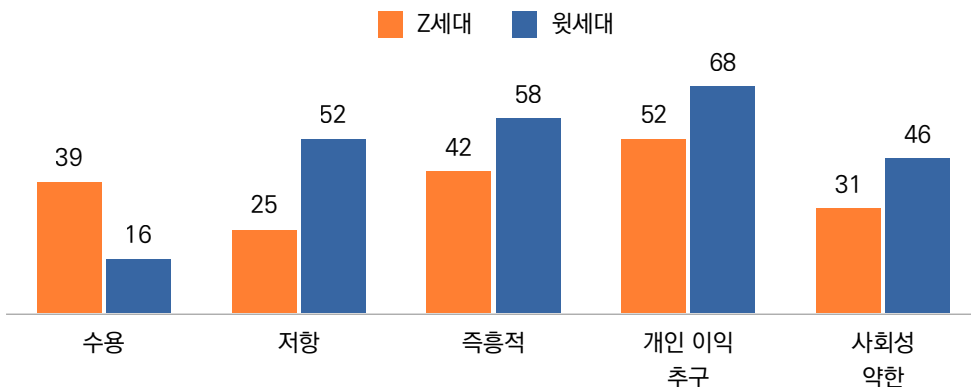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오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5점 척도로 두 개의 상반된 단어 쌍을 제시하고 해당 단어에 가까움(매우+어느 정도)을 선택한 비율

◎ 윗세대, Z세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 키

- ▶ 이러한 Z세대에 대해 그 윗세대(만 29세 이상)는 어떻게 생각할까? 동일한 항목을 제시하고 Z세대의 특징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게 한 결과, 윗세대는 Z세대에 대해 '저항', '즉흥적', '개인 이익 추구', '사회성 약한' 등의 이미지를 더 많이 선택해 Z세대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Z세대 입장에서 보면 '저항적, 즉흥적, 이기적, 사회성 약한' 등의 이미지는 윗세대가 가진 Z세대에 대한 편견인 셈이다.

[그림] Z세대 성향 인식 : Z세대 vs 윗세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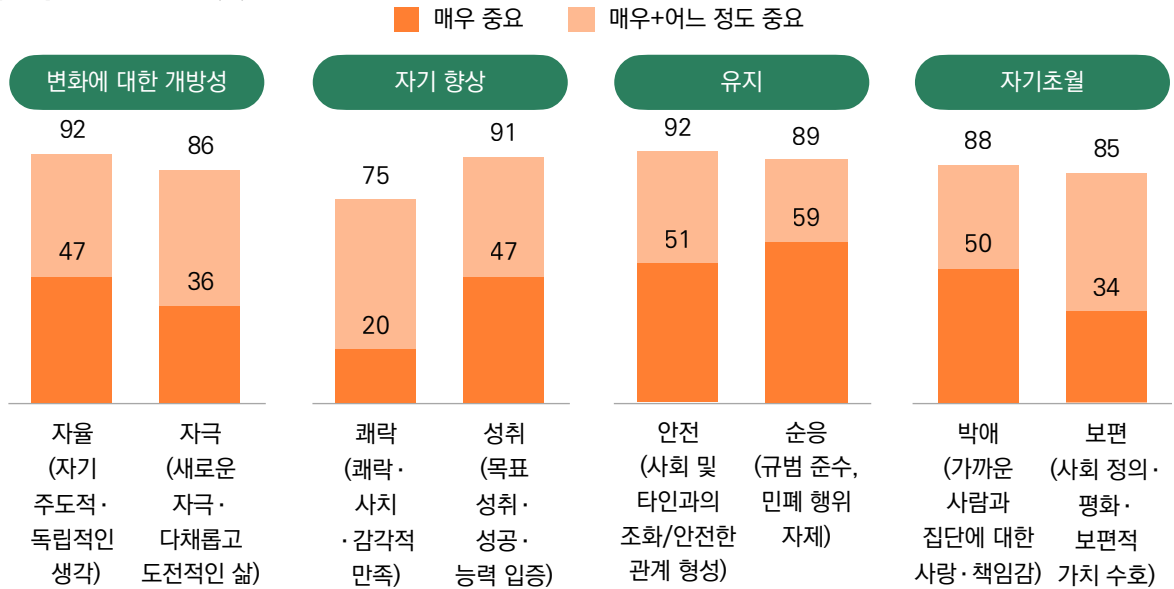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오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5점 척도로 두 개의 상반된 단어 쌍을 제시하고 해당 단어에 가까움(매우+어느 정도)을 선택한 비율

◎ Z세대,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 '안전'의 양면적 가치관 지녀

- ▶ Z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살롬 H.슈워츠'의 '보편적 가치 이론'에 따른 가치관의 종류를 제시하고 중요도를 물은 결과, Z세대는 '자율, 성취, 안전, 순응' 가치에 대해 90% 안팎의 높은 중요성을 부여했다. 특히 '순응, 안전, 박애'의 경우 Z세대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림] Z세대 가치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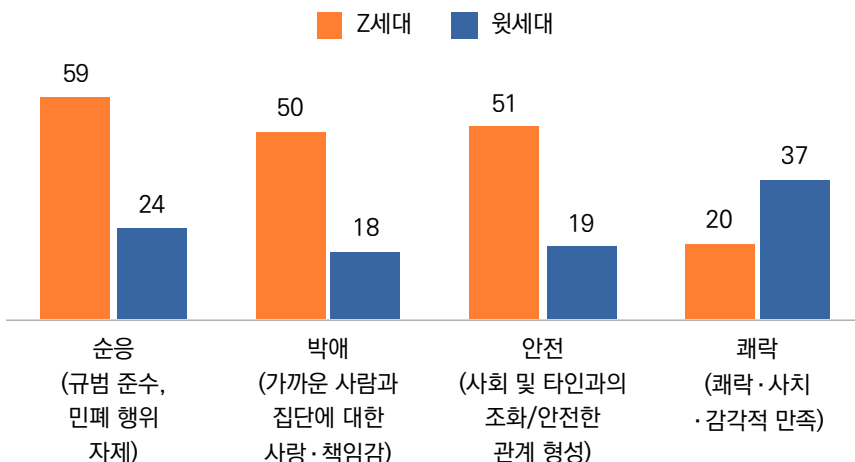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4점 척도임

◎ 윗세대가 바라보는 Z세대, '순응, 박애'보다는 '쾌락'!

- ▶ 이번에는 윗세대(만 29세 이상)에게 Z세대가 각각의 가치를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Z세대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순응, 박애, 안전, 쾌락'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Z세대는 스스로 타인과의 조화(안전), 규범 준수(순응), 주위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박애)을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윗세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Z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Z세대 가치관 인식 : Z세대 vs 윗세대 비교 ('매우 중요'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Z세대에 대한 인식과 이해', 2023.03.22.(Z세대 만 18~28세 313명, 윗세대 만 29세 이상 848명, 웹조사, 2023.02.10.~02.27.)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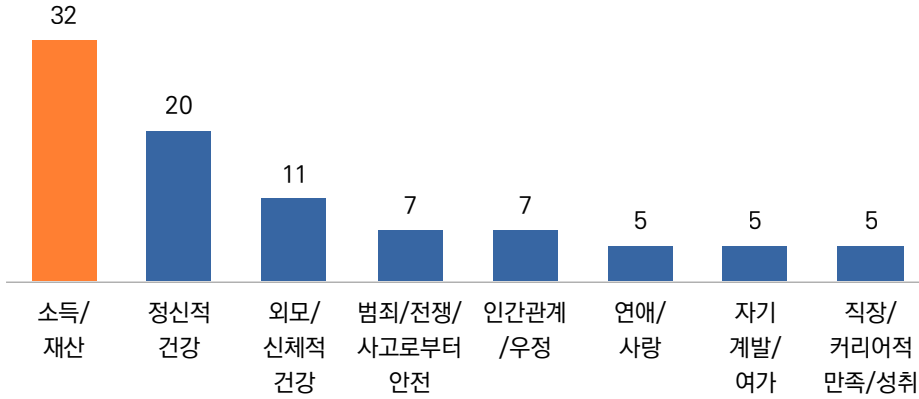
02

[Z세대의 가치관]

Z세대,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

- ▶ Z세대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소득/재산'이 32%로 '정신적 건강'(20%), '외모/신체적 건강'(11%), '안전'(7%)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Z세대,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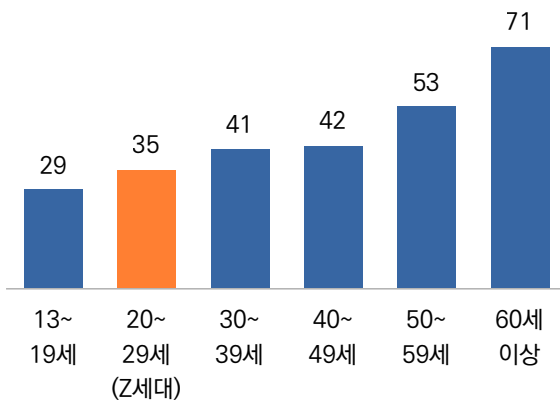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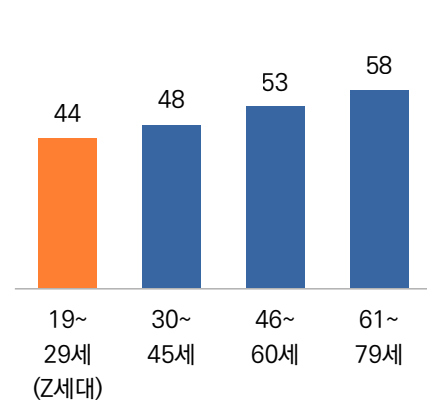
◎ 결혼의 필요성, Z세대 3명 중 1명만이 동의

- ▶ Z세대들의 결혼과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결혼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Z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결혼의 당위성(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동의했다.
- ▶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았는데, Z세대에 해당하는 20대에서는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이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그림] 결혼에 대한 견해*
(‘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 비율***, %)



[그림]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비율****,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11.16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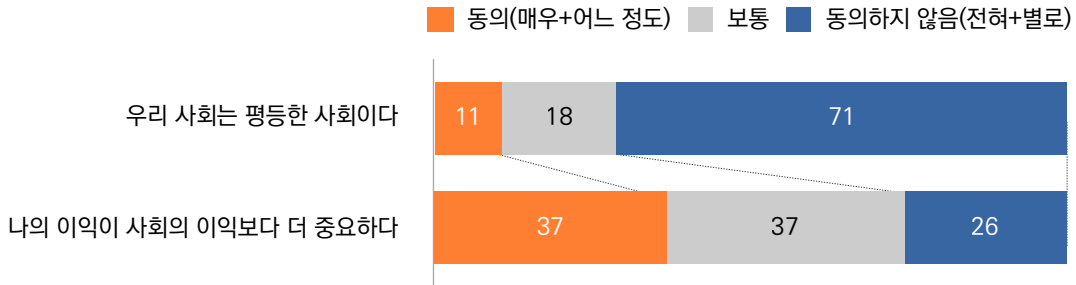
***5점 척도임

****4점 척도로 '매우+대체로' 비율

◎ Z세대 10명 중 7명, '우리 사회 평등하지 않다!'

- ▶ Z세대에게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1%로 Z세대 10명 중 7명이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나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7%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26%)보다 더 높아 사회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보였다.

[그림] 사회에 대한 인식 (Z세대, %)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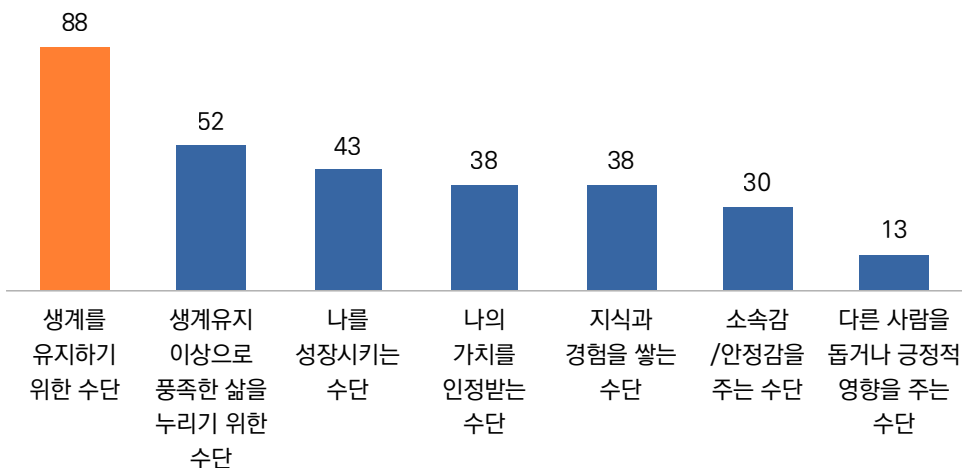
03

[Z세대의 일에 대한 인식]

Z세대 88%, '일 =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

- ▶ Z세대에게 있어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압도적(88%)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생계유지 이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 52%,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 43%,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 38% 등의 순이었다.
- ▶ 일을 '나의 성장과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보다는 '생계유지와 풍족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아, Z세대의 물질 우선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일의 의미 인식 (Z세대,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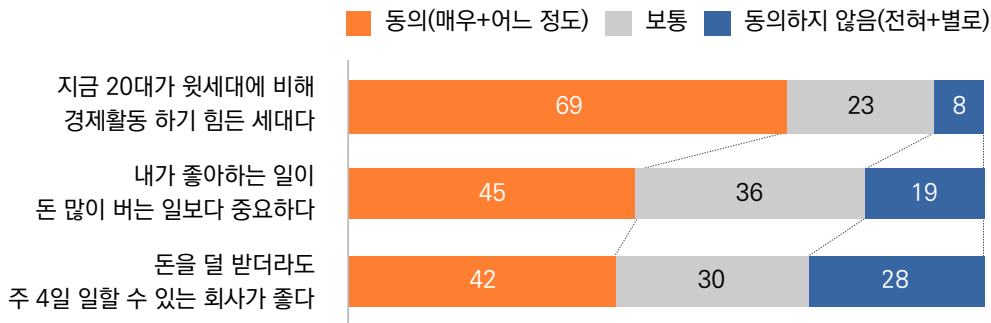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 Z세대 10명 중 4명, ‘돈’보다 ‘워라밸’ 중시!

- ▶ Z세대에게 경제 활동 인식과 관련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그 결과, ‘지금 20대가 윗세대에 비해 경제활동 하기 힘든 세대다’에 Z세대 10명 중 7명꼴(69%)로 동의해 이들이 취업 준비/구직활동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 많이 버는 일보다 중요하다’에 절반 가까이(45%)의 동의율을 보인 점은 앞서 직장 선택 시 ‘높은 금전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것과는 상충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하나, 내적으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 ‘돈을 덜 받더라도 주 4일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좋다’는 42%가 동의해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Z세대, %)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3', 2023.09.(국내 거주 1997~2007년 생 남녀 1,200명, 모바일 서베이, 2023.08.27.~08.28.)

◎ Z세대 직장인이 선호하는 사내 복지, ‘조기 퇴근’!

- ▶ 전 세대가 모여 있는 장소 중 하나가 ‘직장’이다. 세대별로 가장 선호하는 사내 복지를 물었다. 그 결과, Z세대는 ‘조기 퇴근’을, M(밀레니얼)세대는 ‘주 4일, 4.5일 근무’를 1위로 응답했다. 그 외에 X세대는 ‘건강검진, 병원비 지원’, 86세대의 경우 ‘식대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이란 워라밸 측면에서 ‘근무 시간 단축’이란 복지를 선호했고, ‘X세대’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복지, ‘86세대’는 식대 지원 복지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 세대별 매우 다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가장 선호하는 사내 복지 (세대별)

Z세대 (19~27세)	M(밀레니얼)세대 (28~42세)	X세대 (43~53세)	86세대 (54~59세)
			
조기 퇴근 (금요일 4시 퇴근 등) 45%	주 4일, 주 4.5일 근무 41%**	건강검진, 병원비 지원 46%	식대 지원 50%

*자료 출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세대별로 선호하는 직장의 조건과 직장생활’, 2023.09.25.(19~59세 직장인: Z세대 1996~2004년 출생자, 후기 밀레니얼 1989~1995년 출생자, 전기 밀레니얼 1981~1988년 출생자, X세대 1970~1980년 출생자, 86세대 1964~1969년 출생자, 2023.05.12.~05.22.)

**전기 밀레니얼 응답 비율과 후기 밀레니얼 응답 비율을 동일 수로 가정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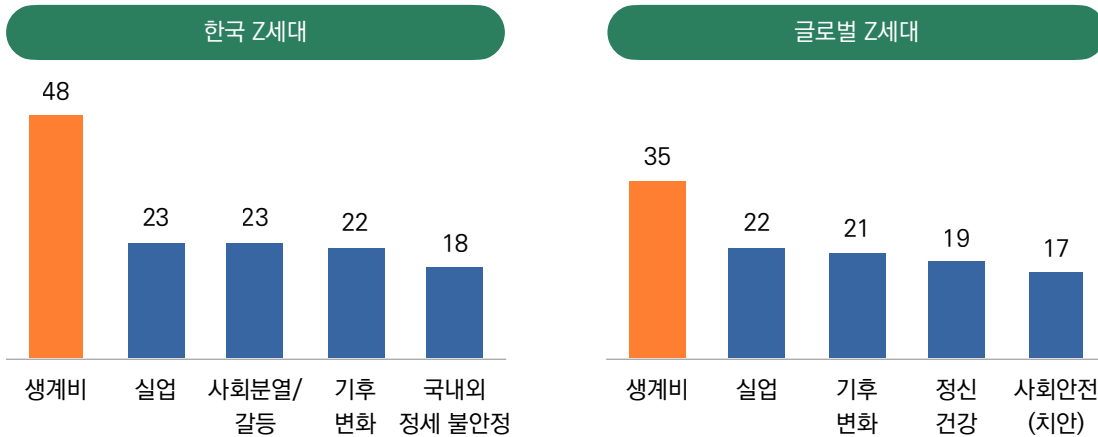
04

[한국 vs 글로벌 Z세대 인식 비교]

한국 Z세대, 글로벌 Z세대보다 '생계비' 관심 높아!

- ▶ 한국의 Z세대와 글로벌 Z세대 간에는 어떤 인식 차이가 있을까? 딜로이트 컨설팅사가 최근 실시한 전세계 44개국 Z세대 14,483명을 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들의 관심사를 1~5위까지 살펴본 결과, 한국 Z세대와 글로벌 Z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모두 '생계비'였다. 그러나 한국 Z세대(48%)가 글로벌 Z세대(35%)보다 생계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2순위 관심사인 '실업'(23%)의 2배에 달했다.

[그림] 5대 관심사 : 한국 Z세대 vs 글로벌 Z세대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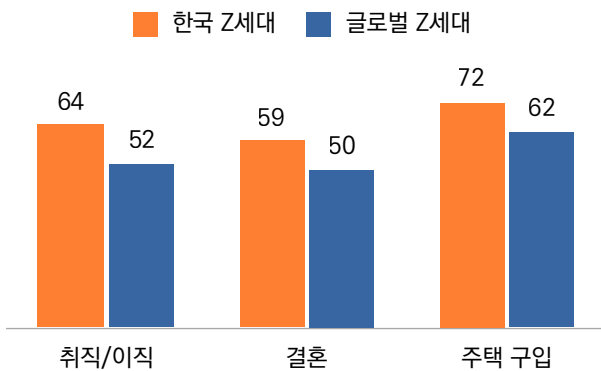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딜로이트, 딜로이트 2023 글로벌 Gen Z & Millennial 서베이, 2023.05. (전 세계 44개국 Z세대 14,483명,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 2022.11.29.-12.25.)

◎ 한국 Z세대, 다른 나라 Z세대보다 취업/결혼/주택 구입 가능성 더 비관적!

- ▶ 한국과 글로벌 Z세대들에게 '앞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더니 두 그룹 모두 '주택 구입' 가능성을 가장 비관적으로 인식했고, '취직/이직', '결혼'을 꼽은 비율이 50~60%대로 나타났다.
- ▶ 한국 Z세대의 '취업, 결혼, 주택 구입' 가능성이 모두 글로벌 Z세대보다 낮아 한국 젊은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앞으로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한 것** : 한국 Z세대 vs 글로벌 Z세대 (%)



*자료 출처 : 딜로이트, 딜로이트 2023 글로벌 Gen Z & Millennial 서베이, 2023.05. (전 세계 44개국 Z세대 14,483명,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 2022.11.29.-12.25.)

**앞으로 1년 내 경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건

오늘날 시대는 00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M세대, Z세대, X세대, α세대 등 이름도 다양하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이에 어울릴 법한 이름을 붙여 다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세대론'이다.

특정 세대에 고유한 명칭을 붙인 첫 번째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이다. 베이비 붐이란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뜻하는 용어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일컫는다. 다음 세대인 'X세대'는 1960년 후반에서 1970년 후반까지 태어난 세대, 혹은 1970년에서 8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X세대라는 말은 캐나다 작가 더글라스 커플랜드가 그의 소설 'X세대'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X세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 다음이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혹은 Y세대라고 불리는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의 세대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밀레니얼 세대 혹은 Y세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현재 나이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후반 세대가 오늘 분석한 Z세대이다. Z세대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X세대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로 일부 미국 언론이 Y세대, 그리고 Z세대까지 알파벳 순으로 세대를 정의하면서 통용되기 시작됐다.

한 예능 방송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코믹하게 그려낸 'MZ 오피스'라는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업무 중에 에어팟을 착용하고, 회식 때 상사 의견에 신경 쓰지 않으며, 근무 환경에 불만을 품고 늘 이직할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 직장인을 풍자했다. 이렇듯 기성 세대에게 젊은 세대는 자유롭고(버릇없고), 저항적이고(순종적이지 않고), 집단과 조화롭지 못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Z세대에 대한 특징, 즉 Z세대론을 만든 것은 Z세대가 아니라 그 윗세대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Z세대의 실체와 상관없이 윗세대가 바라보는 Z세대의 특징이 Z세대 특성으로 통념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번 <넘버즈 212호>에서도 잘 드

러나 있다. Z세대 스스로는 본인들이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윗세대는 Z세대를 '저항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즉흥적'이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성이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Z세대는 본인들이 '순응적'이고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윗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Z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마디로 윗세대는 Z세대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 등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Z세대 스스로는 윗세대의 인식과 같이 그렇게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항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가 바로 세대론의 함정이다. 중앙대의 신진욱 교수는 그의 책 '그런 세대는 없다'에서 세대 내 특정 집단의 특성을 세대 전체의 특성으로 부각하는 잘못을 세대론 주창자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정 세대를 일정한 틀로 설명하는 것 즉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일종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낙인은 특정 세대에 대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들을 고립시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교회에서도 Z세대인 청년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세대에 대한 과도한 유형론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교회 리더들은 청년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예산 등 하드웨어적 지원은 관심을 보이거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해서 청년부가 교회와 단절된, 계도화된 공동체로 남는 경우가 많다. 세대는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에 따른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공통의 문화적 정서적 바탕이 넓다는 점을 인식하고 Z세대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감을 갖고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리더들은 Z세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Z세대를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이들과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Z세대를 별난 존재, 미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교회가 세대 통합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